

## 초등도덕교육에서 배려 의식 함양을 위한 『小學』 활용 방안

The Application of 『Sohak』 for Cultivation of  
Considerate Consciousness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최재영\*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小學』이 현대 교육 상황이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교육서라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남성 중심의 『小學』과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구 결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小學』과 인간의 따뜻한 보살핌, 사랑 등의 정서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련성에 기초하여 『小學』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초등학교 도덕 교육에서 배려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小學』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배려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 또는 배려받는 자로서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려 의식을 함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교육적 위기의 현실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小學, 배려 윤리, 배려 의식 함양, 小學의 교육 내용, 小學의 교육 방법

## I. 서론

학교 폭력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sup>1)</sup> 이에 대해,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등 관련법의 제정과 행정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 혹은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도덕 교육이 이와 같은 문제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만약 다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 구실을 하지 못했는지, 나아가 피해·가해·방관학생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이념은 서구 근대 사회의 합리주의 정신이다. 이러한 합리주의 정신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양극의 논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문제를 더욱 제고시키기도 하였다(최근덕 외, 2003, p. 267). 이러한 갈등과 투쟁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입시경쟁, 조기유학 열풍, 성적 지상주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교육적 성차가 단기간에 드러나지도 않고 가시적 확인도 어려운 도덕 교육에 대해서는 자연히 소홀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배려와 같은 인간관계의 핵심 덕목을 배울 기회가 줄어든 것이 학교 폭력 문제 심화의 주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도덕 교육에서 인간의 따뜻한 보살핌, 사랑 등의 정서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는 최근의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배려 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해줄 수 있는 배려의 능력이 고양될 때,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서양의 지식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개인 간의 단절과 불신, 도덕적 무관심, 이기주의,

1) 박상휘, '교실은 무법천지'... 대책없는 학교폭력.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1312338266869&outlink=1> (검색일 : 2012.01.26.). "서울 서초경찰서는 쇠파이프 등 흉기로 후배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배후 조종해 강남권 일대 2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명으로부터 3년여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해온 10대 청소년과 중고생 50여명을 검거했다. 학교폭력 피해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교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교과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년) 전국 초중고에서 자체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09년 들어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도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도덕 교육의 비중은 입시 과목이라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그 실효성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지가 낮아진지 오래다.<sup>2)</sup> 학교에서 도덕 교과 이수 단위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타교과 안에 병합 혹은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sup>3)</sup> 이러한 움직임은 도덕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오랜 수양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 원리를 간과해버린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小學』은 중국 송나라 朱熹가 劉清之와 함께 옛날 경전들에서 일상생활의 예절과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과 효자의 역사적 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동양의 대표적인 수신서이다. 핵심 내용은 남의 말에 응대하는 법, 몸가짐의 절도와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는 도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덕목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小學』에서 제시한 부모와 어른을 대할 때와 친구를 대할 때의 수많은 사례들은 배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왜 배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도록 해준다.

『小學』은 <內篇>과 <外篇>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內篇>은 다시 ‘立教’, ‘明倫’, ‘敬身’, ‘稽古’로 나뉘어져 있으며, <外篇>은 ‘善行’과 ‘嘉言’으로 구성되어 있다. 『小學』의 <內篇>에 인용된 주요 문헌은 『禮記』·『論語』·『孟子』가 전체 214장 중에 162장을 차지해 朱熹의 四書 중심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또한 『小學』의 <外篇>은 전체 172장 중에 110장에서 송대 사대부의 행실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程顥程頤張載司馬光呂氏의 『童蒙訓』 등이 다수를 차지해 도학을 천명한 북송사대부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다(윤호창, 2011, p. 15). 따라서 『小學』은 다양한 경전들의 단순한 양적 집합이 아닌, 주옥같은 내용을 선별하여 질적으로 재구성한 수신서로서, 『小學』

2) 한준규. 인성 교육? 학교 30% 도덕수업 줄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1721085321950.htm>(검색일 : 2012.02.11.).

3) 임성수. 교과내용 20% 축소... 도덕·사회 없어진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567978&cp=du>(검색일 : 2012.02.11.).

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 비해 초등학교 도덕 교육적 의미를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小學』의 목표·내용·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小學』을 글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오늘날 교육적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비단 중국의 풍습과 우리나라의 그것이 다른 데에서 오는 이질감이나 시대 차이에서 오는 비공감의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小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실례로 제시된 내용들이 다분히 극단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병이 차도가 있는지 심해지는지 알기 위해 직접 아버지의 대변을 맞본 庾黔婁의 사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친정 부모가 재혼을 시키려 하자 스스로 코를 베었다는 예가 대표적 사례이다. 원전의 의도와 달리, 우리가 유념하여 『小學』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와 괴리된 사례로 인해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인륜적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 결과, 『小學』의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례만이 남아 시대가 흐를수록 『小學』의 교육 방법이 후세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서술하고 있는 『小學』의 본질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약화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小學』의 時宜性을 고려하여 현대에 적합하도록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朱熹의 다음 말은 참고할 만하다.

읽는 자들이 왕왕 다만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다르다 하여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그 옛날과 지금에 다름이 없는 것은 진실로 일찍이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전혀 몰라서이다.<sup>4)</sup>

『小學』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적지 않다. 먼저 『小學』의 교육적 원리를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신동은(2004)은 『小學』의 교육 목적은 무엇이고, 『小學』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小學』의 교육적 원리에 바탕하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본이 되는 행동을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중에 공경·참여·성찰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대일(2008)은 『小學』과 초등도덕과의 도덕 교육 원리를 목표, 내용, 방법이라는 각각의 조목에 의거해서 비교하여 살

4) 『小學集註』, 「小學書題」: 讀者往往, 直以古今異宜, 而莫之行, 殊不知其無古今之異者, 固未始不可行也. 朱熹: 劉清之, (2011). 小學集註(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의 본문에서 참고함.

펴보고, 초등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면에서 『小學』 도덕 교육 원리의 의의(적용 가능성과 시사점)를 고찰하였다. 이 두 연구는 초등도덕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小學』을 오늘날에 적합하도록 적용을 시도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양춘자(2005)는 『小學』의 덕목 중에서 오늘날 교육 과정에 알맞은 부분들을 취사선택하여 현대 도덕교육에의 적용을 연구하였으며, 오세근(2001)은 『小學』의 교육 이념을 오늘의 사회 상황에서 끌어 쓸 수 있게 새로 읽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나아가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도덕적 교육 개혁의 시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려 윤리와 『小學』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小學』의 배려적 성격을 규명한 다음, 초등학교 도덕 교육에 『小學』을 활용하여 배려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 Ⅱ. 『小學』의 배려적 성격 규명

『小學』은 남성 중심적으로서 남성의 권위를 옹호하고 여성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배려 윤리는 여성의 보살핌, 신뢰, 관용, 존중, 책임감 등의 덕목을 인간의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어 보편적 윤리로 거부되기도 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남성 중심의 『小學』과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 심성을 중시한다는 점,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천과 자기교육, 본보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1. 자연적 심성 중심의 『小學』과 배려 윤리

#### 가. 인간의 자연적 심성 중시

인간은 누구나 仁, 義, 禮, 智의 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바로 이 本然之性을 깨우쳐 발현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부여받은 인간 고유의 性을 알고 깨우쳐서 그 本性대로 살게 한다는 의미에서 小學 교육은 ‘자라나게 하는 교육(Erziehung des

Wachens - lassen)'의 성격을 갖는다. '자라나게 하는 교육'은 학습자를 자연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자신 안에 내재하는 고유한 법칙성에 따라 내부로부터 발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이용주, 2004, p. 7).

『小學』의 교육적 가치는 자라나게 하는 교육의 의미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를 일깨우고 고유한 법칙성에 따라 내부로부터 발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일상적인 규범을 알고 실천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며 사람의 본성, 즉 仁義禮智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小學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이용주, 2004, p. 4). 앞서 살펴봐왔듯이, 『小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심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배려 윤리에서도 그러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Noddings에 의하면 마음을 열어 타인을 수용하고 태도와 행동의 동기를 타인에게 돌리어 타인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 누구나 배려를 수행하는 배려자가 된다. 이 같이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심성으로 그 전형적인 예는 자식을 배려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자식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심성인 것이다. 배려 윤리는 부모의 마음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태도를 도덕적 시발점으로 한다. Noddings는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에서 당위적으로 취하는 마음을 도덕적 근원으로 하기를 거부하며, 이 같은 당위적 도덕론의 대표적 예로 Immanuel Kant의 도덕론을 들어 비판한다. Kant의 도덕적 의무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보다는 인위적인 의무감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도덕성의 본질을 흐려 놓았다는 것이다(목영해, 2002, pp. 52-53). 배려 윤리 또한 『小學』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마음이 아닌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적 심성을 중시한다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성의 발현에 있어서도 『小學』과 배려 윤리는 유사하다.

#### 나. 심성 발현의 차등성

유교에서 仁은 가까운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인류 전체의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孔子의 愛人思想은 가까운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여 인류 전체로 확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小學』에서는 <內篇>의 '明倫'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Noddings는 배려의 원과 사슬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배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oddings에 따르면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동심원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동심원의 중심에서 가까이 위치한 원 안에 있을수록 친밀감과 배려의 정도가 높다. 또한 거기에는 원들을 넘어서서 내가 전혀 만나 보지도 못했고 배려해 주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과 배려의 사슬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러한 배려의 사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윤미영, 2011, pp. 17-18).

배려 윤리와 『小學』의 근간인 유교 윤리는 도덕적 심성의 발현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孟子에 의하면 四端의 감정은 차등적으로 발현한다. 도덕적 심성은 비록 선천적이지자 자연스러운 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관계가 멀어질수록 약해져 마침내는 도덕적 심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孟子는 당시 兼愛를 주장하는 墨家들로부터 천하의 평화를 깨뜨리는 차별애를 지향하는 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따라서 관계가 멀어져 四端이라는 도덕적 심성의 발현이 약해질 경우에는 도덕적 심성발현을 인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목영해, 2002, p. 55).

Noddings에게 있어서도 배려의 감정과 태도는 자식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자연적 배려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려심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리적 배려라는 이름의 인위적 배려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자연적 배려심을 복제하듯 인위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이다. 또한 배려심의 인위적인 확충은 사슬과 같은 관계망 형성을 거쳐 그 외연을 끝없이 확충하며, 마침내는 인류 모두가 배려 관계를 형성하여 다름과 핍박이 없는 사회에 이르게 된다(목영해, 2002, p. 56).

이같이 『小學』의 근간인 유교 윤리와 배려 윤리는 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 도덕심에 윤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윤리적 도덕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인위적인 윤리적 도덕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자연적 도덕심을 복제하듯 확충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연적 도덕심 발현의 차등성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도덕심의 확충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도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목영해, 2002, p. 57).

## 2. 『小學』의 교육 내용과 배려 윤리의 관련성

앞서 『小學』과 배려 윤리가 인간의 자연적 심성을 중시하고 그러한 심성 발현이 차등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小學』과 배려 윤리의 관련성을 ‘관계’와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쌍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小學』은 기본적으로 父子, 兄弟, 夫婦, 君臣, 朋友, 師弟 등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小學』의 교육 내용 전체에 걸쳐서 핵심이 되고 있으며,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람이 올바른 도리를 체득하며 일용사에서 실행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는 의도로 편찬한 『小學』은 교육 내용을 다음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朱熹는 『小學』을 편찬하면서 먼저 총론에 해당하는 「小學書題」와 「小學題辭」를 두어 『小學』의 편찬 의도를 밝힌 다음, 이어서 「立教」, 「明倫」, 「敬身」의 세 가지 기본 강령을 두었다. 「立教」에서는 교육의 원칙을 말하였고, 「明倫」에서는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의 윤리를 밝혀 인륜의 기본 조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敬身」에서는 경건한 마음 자세와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세 가지 기본 강령을 三代의 행적을 통해 입증한 것이 「稽古」이다. 이어 서술하는 「嘉言」은 한대 이후 명현의 격언과 명가의 가훈을 모은 것이고, 「善行」 역시 한대 이후 聖賢의 말씀과 행적에서 귀감이 되는 실례를 모은 것이다. 「嘉言」과 「善行」도 「立教, 明倫, 敬身」의 순서로 엮여 있다(오세근, 2001, pp. 178-179). 즉, 『小學』의 각 부분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小學』의 내용 서술은 「立教」, 「明倫」, 「敬身」이 기본틀을 이루고 「稽古」가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嘉言」과 「善行」의 응용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小學』은 먼저 사람됨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적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다음, 윤리적 덕목의 실천에 필요한 기본적 마음가짐·몸가짐 등을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귀감이 되는 구체적 실례를 聖賢의 행적을 통해 드러내는 논리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오세근, 2001, pp. 179-180). 이처럼 『小學』은 형이상을 밝히고 규범을 제시한 다음,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줌으로써 구성의 논리적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다.



### 가. 관계 중시

유가의 인간은 관계망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미 다면적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가에서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아들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다르고, 어른에게 요구되는 행위와 어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버지다운, 아들다운, 어른다운, 젊은이다운 자질이 융화된 품성을 갖게 된다. 유가에서는 사람들의 생득적인 독특성보다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중에 갖추게 된 자질에 의미를 부여한다. 즉 자신의 독특한 자아를 발견하는 일보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자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중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최상진 외, 1999, p. 409). 유가의 대표적인 수신서인 『小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小學』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小學』의 교학 내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明倫」편이다. 그러한 明倫을 위시하여 『小學』전편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는 五倫의 규범들은 인간들 사이의 계약론적 규범이 아니라, 궁극적인 존재인 天으로부터 연역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 인간관계 규범이다. 이 五倫에 담겨 있는 근본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섬김과 공경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오석중, 2001, p. 210). 그러한 五倫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공경은 남을 배려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五倫의 각 조목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일방적 역할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사람 서로가 수행해야 할 도리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여러 관계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직분이 요구하는 역할과 분수를 배워 익히고 실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오세근, 2001, p. 191). 실제 사회생활 과정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관계 맺음의 측면과 더불어 서열적 질서에 바탕을 둔 수직적 관계의 교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정, 기업, 지역 사회, 국가 등은 이 같은 횡적·종적 관계의 얽힘을 통해 사회 질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 이 과정은 수많은 규범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회적 생활 과정에서 맺는 관계를 추상화하면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小學』은 사회관계에서 각각 처신해야 할 바른 도리를 배양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小學』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간성 도야의 조목을 五倫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五倫은 변화한 사회 상황에 따른 질서 유지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석이 필요하다(오세근, 2001, p. 188). 이처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時宜性을 고려해야 하는데, 『小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五倫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五倫은 현대 민주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윤리 상황에서는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면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父子夫婦의 윤리는 그 상호 섬김과 존중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현대적 해석을 하면, 오늘날에도 가정 윤리 교육의 지침을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長幼朋友 윤리는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민 사회에서 상호간의 인간적인 공경과 신뢰의 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 공동체 정신으로, 君臣 윤리는 정치 지도자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신분을 다 하는 의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오석종, 2001, p. 218).

한편, Noddings에 따르면 관계는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 있는 도덕적 삶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인간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의 자아이다. 배려의 관계란 배려자와 피배려자와의 관계이다. 배려는 배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배려란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은 오랜 기간 동안 관계의 계속성을 필요로 한다. 배려자와 피배려자에게는 배려의 관계성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때, 외로움과 낯설음을 느낄 것이며, 스스로 보살피는 자로부터 떠나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과도 멀어진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영원히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실제로 어려움이 없으면서 영원히 홀자가 됨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관계로부터 '인간적임'과 '존재' 자체를 모두 잃는 것이다.

Noddings에 따르면 개인성은 사람 간의 일련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고 보며, 인간은 자기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즉 받아들이고 수용되어지는 것, 돌보고 배려를 받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실재와 목적이라 주장하며, 배려의 목적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타자성을 발휘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문정애, 2008, p. 18).

배려 윤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의 근원적 현실을 '관계성'에 두고 있으며, 도덕적 자아도 원자론적인 자아가 아닌 관계 속의 자아를 강조한다. 따라서 배려의 관계에 기초한 배려 윤리학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는 관계 존재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존재론에 기초한 배려 윤리에서 '나'란 끊임없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 개인으

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자체로서의 ‘나’이며 이러한 ‘나’는 내 육체적 자아가 놓여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실제로 정의된다. 이는 홀로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아닌, 관계 속에서 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펼쳐 가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은 전통적 윤리학에서 강조한 규칙 또는 원리와와의 일치 여부나 행위가 산출한 결과의 유용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요컨대 배려 윤리는 전통적 윤리학에서의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진정한 감응과 개인이 놓여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문정애, 2008, p. 20). 이처럼 배려 윤리에서도 『小學』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나. 쌍무성 중시

쌍무성이란 관계 속의 어느 한 주체만 일방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상호간 책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孝란 자식이 부모에게 지극히 실천해야 하는 도리이지만, 부모 또한 자식에게 자애로써 대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점이 예를 들어 孝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봉양만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방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小學』에서 孝의 시작은 부모에 대한 섬김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섬김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善으로서 전제되며, 미루어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또한 임금이 그러한 덕을 극진히 가지고 있으면 德教가 세상에 시행되어서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인륜의 시작은 孝의 섬김의 정신을 미루어 나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小學』에서는 부모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하고 있다. 부자의 윤리가 무조건 상하 주종, 수직적 관계 윤리로 비치는 것은 효도와 자애가 균형 있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유가의 학습서들이 제자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애보다 제자의 직분인 효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언급되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五倫의 다른 윤리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당시 주종적 사회 문화의 영향 때문에, 주종 관계의 계층 의식은 일방의 도리를 타방의 그것에 비하여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자

윤리에서 효도만이 강조되는 것은 根本儒學의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실 根本儒學의 정신은 孔子의 正名精神에서도 천명되어 있듯이 父子有親에서 親의 참모습이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로움-자애로움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스러움이 쌍무 호혜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다(오석중, 2001, p. 211).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경은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여겨지지만, 윗사람들도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는 쌍무성이 『小學』에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임금은 신하 부리기를 禮로써 하며, 신하는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한다.<sup>5)</sup>

제사는 반드시 夫婦가 친히 하여야 한다. 이는 바깥과 안의 맡은 일을 갖추기 위해서이니, 맡은 일이 갖추어지면 제물도 갖추어진다.<sup>6)</sup>

임금은 명령하고 신하는 공손하며, 아버지는 자애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화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며느리는 순종함이 禮이다.<sup>7)</sup>

한편, Noddings는 배려 윤리는 철저하게 관계적이며, 관계가 배려로서 기술되려면 타자에게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배려 윤리가 배려를 하는 자만이 아니라 배려를 받는 자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배려라고 하면 배려를 하는 자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배려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배려하는 방법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를 받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배려를 받는 자는 배려하는 자에 대한 수용, 이해,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자로부터 배려를 받고 진실된 마음을 느껴본 자는 누군가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받았던 배려를 회상하면서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려 윤리에서도 『小學』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주체만의 일방적 실천이 아닌 쌍무성을 중시하고 있다.

5) 『小學集註』, 「明倫」: 53.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6) 『小學集註』, 「明倫」: 29.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

7) 『小學集註』, 「明倫」: 104. 君令臣恭, 父慈子孝, 兄愛弟敬, 夫和妻柔, 姑慈婦聽, 禮也.

### 3. 『小學』의 교육 방법과 배려 윤리의 관련성

교육 내용만이 아니라 『小學』과 배려 윤리는 교육 방법에서도 깊은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小學』의 교육 방법을 살펴본 다음에 배려 윤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小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은 행동 실천 중시, 자기 교육, 단계적 학습, 수범 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석중, 1999, pp. 125-155). 『小學』의 교육적 방법 첫째, 행동 실천 중시의 원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몸과 일이 익숙해져 편안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灑掃應對進退之節은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데서 실천하는 배움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도리와 孝悌忠信의 윤리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함을 제일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린 학습자를 교육하는 데 행동 실천을 통하여 仁義를 가르치는데 우선성을 두는 것이지 사유의 우선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小學』의 방법은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도록 했다는 데 주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자기 교육이다. 이는 居敬과 窮理로 나누어지며 居敬은 마음을 보존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주재하도록 하는 노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窮理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자기 교육의 원리인 인간 행동의 실천은 그 근원은 마음을 바로 세우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인간 내부에서 외면적 행동을 규율하고 주재하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근본 배양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朱熹는 마음을 주재하고 검속하는 방법으로 敬을 제시한다. 敬이란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가지런하고 순일하게 하여 방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敬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일체의 잡념에 마음을 옮기지 않은 것(主一無敵), 마음가짐을 정돈하여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整齊嚴肅), 항상 분명히 깨달은 상태로 있는 것(常惺性) 등으로 표현된다. 즉 일에 방종하지 않고 한곳에 주장하기를 한결같이 하는 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敬은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恭하고, 일을 할 때에는 敬하고, 사람을 만나서는 忠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敬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행동 실천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외면적 행동을 규율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치를 생각하게 하여 맹목적 행동 실천이 아닌 그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

셋째는 단계적 학습이다. 『小學』의 교육 방도는 『小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大學』을 배워야 한다는 기초 이론이다. 기초 예절과 윤리 규범이 실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원한 것, 형이상학적인 것을 배운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본인도 배우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灑掃應對進退之節을 강조하는 데에는 『小學』 나름의 덕성 발달에 관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小學』에 내포되어 있는 덕성 발달론에 대한 관점은 덕성은 인지가 단독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덕을 잡음이 굳건해지고 안정되어 간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즉, 『小學』에서는 도덕적 실천이 없는 인지만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넷째는 수범 학습이다. 이는 현실 생활에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모범적 행동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배우는 자가 감화를 받아 그것을 본받게 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小學』에서 모범 인물 학습의 대상은 聖賢의 말씀과 행동이 되며, 또한 이러한 언행을 덕으로 소유한 聖賢은 도덕적 정진을 하는 배우는 자에게 수양의 이상적 모델이 되는 것이다. 聖人の 언행과 사상이 담긴 경전을 학습한다면 현실적인 인물보다 더욱 모범적인 인물의 특징을 소유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경전과 역사서들에 표현되어 있는 聖人の 경지를 체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객관적으로 투영시키는 것이 수범 학습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실천 중시

『小學』이 五倫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자기 수양의 거점이자 자기 수양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혹은 동료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유가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식이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존재에 부가되어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이다. 사람들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간관계를 벗어난 곳에서 추상적 도덕 원리를 찾을 수 없고, 인간관계를 벗어난 자기실현이 추구되지도 않는다. <內篇>에서의 배움과 실천은 핵심적인 삶의 현장인 인간관계를 무대로 바람직한 행위를 익숙하게 실천해가는 중에 학습자의 배타적 욕망을 극복하고, 무엇이 하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신동은, 2009, p. 110).

유교에서 仁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集義, 즉 바른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다. 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인간이 가진 氣의 생동력은 지극히 크고 강건하여져 우주적 차원의 큰 생동력인 浩然之氣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이는 선한 본성의 확충으로 이어져 인간의 착한 본성이 우주에 꼭 차도록 확충된다고 한다(이혜은, 2011, p. 88).

Noddings 역시 배려의 실천적 체험이 배려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덕적 삶에 접근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기능과 배려에 필요한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추병완 외 역, 2002, p. 56).

이것은 배려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배려받고, 배려하는 체험을 실제로 해보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혜은, 2011, p. 88). 지성의 획득이 단순한 언어적 정보의 획득을 넘어서 실행적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듯, 배려적 도덕성 신장 또한 문자나 언어적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려 교육에는 학생에게 배려의 실천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oddings에 의하면 배려의 교육적 실천 경험에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 활동이 적절하다. 배려의 방법을 지도하여 주고, 배려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보람에 대하여 대화하고, 배려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알게 하여 줄 성인 배려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 봉사 활동은 학생의 배려 의식 및 실천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목영해, 2002, p. 58).

#### 나. 자기 교육 중시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겠지만 『小學』과 배려 윤리에서는 타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시하며 끊임없이 자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小學』의 「敬身」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윤리를 중요시하는 인간관계적 윤리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그에 앞서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즐기찬 정진을 강조한다. 『小學』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공부, 즉 爲人之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수양과 덕을 닦는 爲己之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덕적 정진

을 통한 자아의 실현에 있으며, 그것을 미루어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사회적 봉사와 헌신을 포함한다. 즉, 儒學은 修己而安人의 정신으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통합의 정신을 담고 있다. 敬身은 미세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수신의 노력이 없이는 그 효험이 나올 수 없는 영역에서의 윤리적 자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小學』에서 敬身만큼 爲己之學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서양의 의무 중심 윤리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으로서 도덕적 수양의 영역으로 삼지 않는 영역인 것이다. 『小學』에서의 「敬身」편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으로는 마음가짐의 요령으로 감정이 편벽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심술지요, 몸과 행동을 예에 맞게 정제엄숙하는 용모 간수법, 의식 생활과 식생활에서 예를 맞추어 경의 자세를 가지는 의복 예절 및 식사 예절로 나뉘어져 다루어지고 있다(최현호, 2006, pp. 247-248). 이처럼 『小學』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자기 교육을 중시하며 이는 다음의 慎獨에서도 알 수 있다.

慎獨은 본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세이다. 즉 存養에 있어서 慎獨이 중요한 수양법인 것이다. 朱子를 위시한 新儒學者들은 항상 敬의 자세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의 기상은 반드시 마음은 넓고 행동은 편안하여져 몸과 옷차림이 모두가 예에 맞아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단지 사욕에 의해, 방만한 몸가짐으로 인해, 기질이 막히고 탁함에 의해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敬의 자세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요청되는 것이다. 일이 있을 때의 敬은 孔子가 仁을 말함에 있어 ‘다만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빈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라는 말과 같이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용주, 2004, p. 51).

慎獨과 관련하여 오늘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 매체와 인터넷, 스마트폰 속의 엄청난 양의 정보들에 대해서 올바른 수용과 판단력을 갖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보존과 수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小學』에서는 자기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에서 수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배려 윤리에서는 타자를 배려하기 전에 ‘자기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배려가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경우에, 배려하는 자는 지나친 배려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배려의 부족으로 자아 존중도 부족해진다. 그렇게 되면, 배려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배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배려는 자기희생을 근거로 타자만을 배려하는 양상을 띠어서는 안 되며, 자기 배려와 타자의 배려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면, 타인을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을 것이고 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 지각, 자아 존중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정애, 2008, p. 57).

이러한 자기 배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요구되는데 Slot은 자기 배려적인 덕목으로서 인내심, 절제심, 신중함, 분별력, 단호함, 주의력, 선견지명, 곳곳함, 재치, 용의주도함 등을 들고 있다. 이 덕목들은 분명히 교육될 수 있는 덕이며, 오히려 자기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ichel Foucault에 의하면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흔히 비도덕성으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 도덕성의 전통에서는 자기 포기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Foucault는 그리스-로마 전통을 예로 들면서, Socrates의 ‘너 자신을 알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보살피게 된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문화에서 자기 배려는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기 배려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만을 돌보자는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보살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몸과 정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적인 가치, 독특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등, 자기를 스스로 구축하고, 실천하고 변형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oucault가 말하는 자기 배려는 이웃이나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홀로 자기 내면에 빠진 수련이 아니라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는 훈련이며 타자를 끌어안는 윤리적 실천 양식으로 볼 수 있다(문정애, 2008, p. 59). 이처럼 배려 윤리에서도 자기 배려를 위해서는 자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다. 본보기 중시

聖賢의 실천적 본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본성을 충분히 확충하고 발현하여 보아야겠다는 뜻을 세우게 한다. 『小學』에는 『禮記』·『論語』·『孟子』에서의 사례와 송대 사대부의 행실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자식, 제자, 신하의 모범적 실천을 강조한다. 孔子는 말로써 가르치기에 앞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본받게 가르쳤다. 『論語』에서 孔子는 제자들에게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이라 하여 배운 것을

묵묵히 마음에 새기고 배우면서 싫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하여 학문을 추구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孔子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제자들로 하여금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였다(이혜은, 2011, p. 127).

『小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 인물 학습은 바로 聖人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학문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학습인 것이다. 性理學에서 聖人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은 배우는 자는 聖人을 자기 수양의 이상적 표준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聖인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와 정진의 노력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聖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聖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즉 性을 내재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小學』에서 모범 인물 학습의 대상인 聖人 또는 賢人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本性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실현하는 도덕적 정진을 하는 데는 남보다 지극히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인 것이다. 이에 『小學』에서는 全篇에 걸쳐서 각 편마다 수많은 聖賢들의 모범이 제시된다. 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聖人, 덕 있는 사람, 君子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이 이상적 인물은 덕의 지속적인 쌓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준거요 동인이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범 인물 학습 과정은 聖人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자기 체험 속에서 얻게 되는 개별성에 대해서 하나의 보편적 준거로써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용주, 2004, p. 58).

Noddings에 의하면 교사는 배려 관계 형성자로서 학생들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배려의 의미와 배려의 방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려의 의미와 방법을 알게 하는 데에는 이것을 말로써 설명하거나 책을 읽게 하기보다는 교사가 그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 교사가 학생들과 배려의 관계를 맺어 배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이에 Noddings는 본보기가 모든 도덕 교육에서도 중요하지만 배려 교육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목영해, 2002, p. 57).

배려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려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누군가로부터 배려를 받았거나,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배려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배려를 받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단순히 수업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배려를 행하는 따뜻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배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배려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혜은, 2011, pp. 127-128).

이와 같이 『小學』과 배려 윤리에서는 본보기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배우는 자로 하여금 모범 인물에 대해 마음 깊숙이 존경을 느끼게 하고 본받아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보기의 교육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 자신이 모범적인 인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최근 발생한 일부 교사의 문제를 보면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인면수심의 범죄까지 행해진 사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sup>8)</sup> 다시 한 번 교사의 도덕적 자질과 소양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 4. 『小學』의 배려 교육적 의의

『小學』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밝힌 신동은(2003)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는 배려 의식 함양의 측면에서 『小學』의 배려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小學』교육에서는 어린 시절의 교육적 체험을 중요시하며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년기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교육 과정에서도 저학년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모방하거나 수용하여 반복 실천하게 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신념화를 꾀하는 방법을 도덕 교육 방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한 도덕 교육 방법을 배려 교육에 적용시킨다면, 저학년 때부터 배려의 실천적 체험의 누적을 통해 배려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배우게 되고, 고학년이 되면 예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배려의 개념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8) 박상익, 초등교사, 女제자와 성관계 충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693031>(검색일 : 2012.12.10).

“20대 후반의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사 A씨(29)는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6학년에 재학 중인 B양(12)을 만났다. B양은 A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결국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져 과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후견인이 고소를 취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小學』에서는 지적·이성적 설득, 논의, 암기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중시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 가정 등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대해가야 하고, 그 안에서 삶을 경험하고 배우는 일까지를 교육으로 이해하는 안목의 확장이 필요하다. 『小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배워서 실천할 것으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어른에게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사귀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습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학문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한다. 직접 체험해보면서 배우는 교육 내용들은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도덕적 가치 규범을 가르침에 있어 관념적·추상적·피상적인 지식 위주의 학습 지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을 통해 실천성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小學』의 교육 정신에 의한다면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변화하고 자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된 자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경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려 윤리에서도 실천을 중시하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배려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하며, 배려를 실천했을 시에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칭찬이 따른다면 아동이 배려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셋째, 『小學』에서는 책상 앞에서의 교과 학습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역할 습득을 중요시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관계의 한 계기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목적을 완수하는 경험을 통해 상호 보완, 배려, 신뢰감, 공존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배려 윤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관계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관계 속에서 본인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배려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넷째, 『小學』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 인간, 곧 성숙한 인격 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小學』에서는 인격, 도덕적 삶은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도덕성에 대한 『小學』의 통합적인 이해는 기존의 협소한 교육관을 넘어서, 삶과 교육을 함께 이해하는 통찰을 갖게 해 준다. 그러한 『小學』의 교육관은 배려 의식 함양에 있어서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 Ⅲ. 초등도덕교육에서 배려 의식 함양을 위한 『小學』 활용 방안

#### 1. 배려 의식 함양을 위한 『小學』 교육 내용의 재구성

가.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小學』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다 해도 교육 과정 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小學』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2007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표’를 Noddings의 배려 영역에 비추어 작성한 표(윤미영, 2011, p. 35)를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보았다.

<표 Ⅲ-1>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

내용 영역	배려 영역	학년	내용	관련 『小學』 내용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자아에 대한 배려	3	·도덕 공부는 이렇게 해요	
			·소중한 나의 삶	·立教-1
		4	·정직한 삶	·立教-3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嘉言-83, 86
		5	·최선을 다하는 생활	·立教-7, 嘉言-38
			·감정의 올바른 관리	·嘉言-37
			·반성하는 삶	·嘉言-62, 71, 78
		6	·자긍심과 자기계발	·善行-71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善行-67
·용기 있는 행동	·嘉言-61			

<표 III-2>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

영역 \ 내용	배려 영역	학년	내용	관련 『小學』 내용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3	·가족 사랑과 예절	·明倫-6, 21, 22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친구 간 우정과 예절	·明倫-91, 92, 93, 94 ·嘉言-51, 52
		4	·약속을 지키는 삶	-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5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敬身-4, 30
			·서로 돕는 생활	·稽古-33
			·대화와 갈등해결	·嘉言-16
			·게임중독의 예방	·善行-59
		6	·준법과 규칙 준수	·善行-22, 57
			·공정한 행동	·善行-62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善行-55			

<표 III-3>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 내용	배려 영역	학년	내용	관련 『小學』 내용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낮선 사람에 대한 배려	3	·나라의 상징과 나라사랑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
		4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
		5	·북한동포 및 새터민의 삶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嘉言-54
		6	·편견 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	-

<표 III-4> 『小學』의 교육 내용과 연계한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

내용 영역	배려 영역	학년	내용	관련 『小學』 내용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동물·식물 그리고 땅에 대한 배려	3	·생명의 소중함	-
		4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보호	-
		5	·참된 아름다움	·嘉言-67
		6	·사랑과 자비	-

교사들은 위에서 제시된 내용 체계표를 참고하여 수업에 예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小學』 교육 내용의 특성상 자아에 대한 배려 영역과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또한 위 내용 체계표에 반영된 관련 『小學』 내용들은 현시대와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예화를 선정하여 그 번호를 기재하였으나, 교사는 『小學』을 예화 자료로 활용할 때에 반드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쉬운 용어로 바꿔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교육 내용이 좋다하더라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교육의 효과가 낮아지듯이 교사는 수업 준비 단계에서 사용할 학습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하겠다.

#### 나. 『小學』의 쌍무성을 활용한 배려 의식 함양 교육

『小學』의 교육 내용은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계의 실천을 핵심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본질 중의 하나가 쌍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小學』 교육 내용의 핵심인 쌍무성을 활용한 배려 의식 함양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보겠다.

『小學』과 같은 儒學 교재들에 대한 현대인들의 편견 중의 하나가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지키고 행해야 하는 덕목들이 대다수 열거되어 있는 책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양적인 면만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질

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앞서 『小學』의 교육 내용과 배려 윤리의 관련성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小學』 교육 내용의 근본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한 내용들이며, 그러한 인간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쌍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음에 제시되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이 아닌 양쪽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어야 하는 관계를 찾아보게 하고 각각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하는지도 적어보도록 함으로써 관계란 어느 한 쪽만 잘해서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누구를 어떻게 배려하는 방법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각자 서로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이러한 배려를 하거나 또는 받게 되었을 때의 심정이 어떨지 진지하게 생각하여 기록하고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려 의식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小學』의 공경과 배려의 정신을 활용한 배려 의식 함양 교육

위에서 살펴보았던 쌍무성을 활용한 교육과 이번에 제시되는 『小學』의 공경과 배려의 정신을 활용한 교육은 『小學』의 교육 내용을 직접 꺼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小學』 교육 내용의 본질을 활용하여 배려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공경에 대해 『小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근세에 인정이 박해져서 서로 기뻐하고 친압함을 서로 친함으로 여기며, 모남이 없는 것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여기니,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만약 오래 가기를 바란다면 모름지기 공경해야 하니, 군신간과 봉우간에는 모두 마땅히 공경을 주장으로 삼아야 한다.<sup>9)</sup>

인간관계에서 서로 기뻐하고 친하게 지내고, 모남이 없는 상태는 표면적인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공경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

9) 『小學集註』, 「嘉言」: 51. 近世淺薄, 以相歡狎, 爲相與, 以無圭角, 爲相歡愛, 如此者 安能久, 若要久, 順是恭敬, 君臣朋友皆當以敬爲主也.



려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고려하여 하는 것처럼 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심이 배제된 물질적 혹은 걸치레적 배려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가능할 것이다. 타인의 마음속을 읽지는 못해도 타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그 자체로서 배려는 싹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 물질적 목적을 얻기 위한 이해 타산적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러한 공경과 배려의 정신을 적용한 교육의 실제에서는 우리 생활 속(가정, 학교 등)에서 공경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을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공경과 배려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하고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하도록 하였다.

#### 라. 현대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小學』 교재의 활용

『小學』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자료는 시중에 이미 보급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어린이를 위한 『小學』 교재로 ‘순가락 먼저 들면 왜 안 돼요?(최영갑, 2011, 도서출판 풀빛)’, ‘어린이 한자 학습 인성 교육을 위한 사자소학(고대혁 외, 2008, 교육과학사)’, ‘어린이 사자소학(엄기원, 2005, 한국독서지도회)’, ‘어린이 소학(편집부, 2003, 해원출판사)’, ‘소학(어린이선비교육연구소, 2000, 자유지성사)’ 등이 있다.

이상의 기 출판된 어린이 소학 책들을 보면 『小學』의 교육 내용을 기초로 하고는 있으나, 내용의 이해와 흥미보다는 대부분 한자 학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인성 교육이 부로 四字小學의 뜻풀이 정도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출판된 최영갑의 ‘순가락 먼저 들면 왜 안 돼요?’를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앉혀 놓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 교육보다는 옛 聖人들의 명언과 지혜를 통한 인성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방 한 가운데 앉은 아이에게, 정리 정돈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시킨 일을 귀찮다며 미루는 아이에게, 책 속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왜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지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학생들이 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다.

교사는 시중에 출판된 『小學』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풀어 쓴 여러 교재들 중에서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여 수업 시간에 예화 자료로 제시하여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아침활동 시간이나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교재를 읽게 한 후,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여 친구들과 독서 소감을 공유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한자 교육에 치중하게 되면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성보다는 한자의 의미와 해석에 더 매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자보다는 『小學』의 교육 내용에 담겨 있는 정신에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하겠다.

## 2. 배려 의식 함양을 위한 『小學』 교육 방법의 재구성

### 가. 나의 멘토 정하고 실천 체크리스트 만들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小學』의 교육적 방법 중의 하나는 수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모범적인 인물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감화를 받아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모범적 사례들을 통해 스스로 간접 경험을 하고 이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성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옛 聖人들도 좋지만 꼭 과거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현시대의 인물을 자신의 멘토로 정할 수도 있다. 덧붙여 멘토로 정하게 된 이유를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서라는 등의 맹목적인 이유가 아닌, 본인이 왜 멘토로까지 정해서 본받으려고 하는지 학생의 삶의 경험과 부족한 점에 비추어 기재하도록 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멘토가 정해졌으면 멘토로부터 내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 하겠다.

또한 『小學』의 교육적 방법 중의 다른 하나는 행동 실천 중시인데 이는 자신이 정한 멘토처럼 되기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날마다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실천 체크리스트는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집안 벽이나 방문, 교실 사물함 등의 자주 접하게 되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또는 수첩 규격으로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도덕적 실천을 생활화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실천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을 정해버린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쉽게 포기하고 관심을 잃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도록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한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5> 나의 멘토 정하고 실천 체크리스트 만들기 예시

나의 멘토		故 이태석 신부
멘토로 정한 이유	故 이태석 신부님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지내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수단 남부의 오랜 내전으로 잿더미뿐인 톤즈라는 지역으로 가서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수단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의료 봉사를 하였다. 그런故 이태석 신부님이 희망이 없던 수단의 톤즈에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다.	
멘토처럼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할 점		실천여부
1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구 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다가 가서 도와주기	
2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만한 말은 하지 않기	
3	내 주변 상황이 힘들어도 불편불만 하지 않기	
4	친구들이 꺼려하는 일을 용기내서 한번 해보기	
5	항상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기	
6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소중한 내 건강 지키기	

나. 스마트폰 어플<sup>10)</sup>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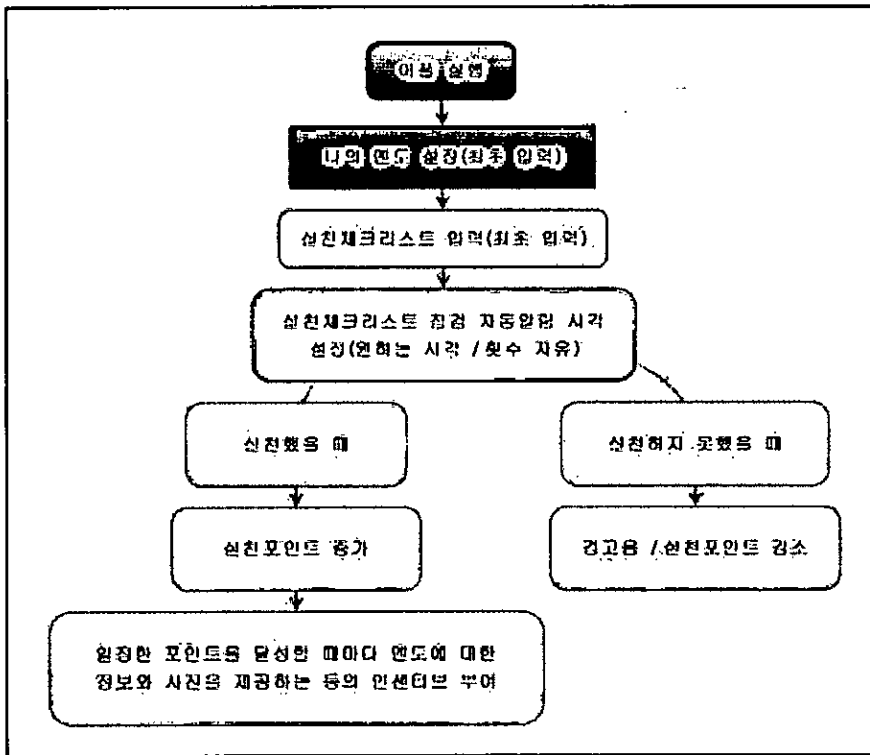
위에서 『小學』의 교육적 방법 중 수범 학습과 행동 실천 중시를 활용한 ‘나의 멘토 정하고 실천 체크리스트 만들기’를 제시하여 보았다. 이번에는 이를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도 고안될 필요성이 있겠다. 바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2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 672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천 255만 명의 50.84%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이다.<sup>11)</sup>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

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으로 표기했을 때 짧게 줄여 ‘어플’이라고 부른다. 운영 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뜻한다.

11) 이정내.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넘었다. 스마트시대 ‘활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612478>(검색일 : 2012.07.22.).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2009년 11월 국내에 애플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만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는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을 뿐 아니라 기업의 업무를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며,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 오래다. 그런 추세를 고려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 몇 년 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시점을 고려하면 관련 어플의 개발은 교육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과 접하는 시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만 이용한다면 도덕적 실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인 중독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은 범국민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선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과 교육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小學」의 교육적 방법 중 수범 학습과 행동 실천 중시를 기초로 하여 어플이 개발된다면 다음 [그림 III-1]과 같이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림 III-1] 어플 실행 예상도

위 [그림 III-1]에서 어플을 처음 실행한 후 우선 나의 멘토를 정하고 다음에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실천 체크리스트에 따른 항목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설정한 시각에 따른 점점 알림이 올리면 실천여부

체크도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입력하게 된다. 이때 실천하였을 경우에는 실천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며,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천 포인트가 감소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실천 포인트를 달성할 때마다 멘토에 대한 정보와 사진·동영상을 제공하여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다. 반성 학습지를 활용한 자기 교육

이번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스스로 성찰하게 해주는 『小學』의 자기 교육을 적용한 반성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이다. 이 방법은 명상 학습과 연계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교사는 먼저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로 앉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명상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학생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깊게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잘못을 밝히는 일이 창피할 수도 있지만 반성을 통해 그것을 뉘우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인식시켜 주어야 하겠다.

단순히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와 만약 내가 당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심정은 어떨 지에 대해서도 적어보게 하였다. 이러한 성찰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앞으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한 실천 다짐도 적도록 하였다. 본 교육 방법의 실시 시기는 교사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일주일이 지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활동 시간에 행해진다면 반성의 교육적 효과로서 나머지 남은 한 주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부나 시민 단체 등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대처 방안일 뿐,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

가 멀다. 교권이 회복되고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小學』은 배려 의식의 함양을 통해 심각한 교육적 위기의 현실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여러 고전 중에서도 특히 『小學』은 현대 교육 상황이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교육서이다. 즉 『小學』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에 의한 물질 숭배 교육, 우리 역사의 특수한 전개과정을 반영한 왜곡된 교육에 의해 황폐화한 아이들의 사람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소생력을 내재하고 있다(오세근, 2001, p. 195). 우리의 선조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힌 다음 『小學』을 공부하였으며, 이는 유교 사회의 도덕 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서 儒學 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朱熹는 『小學』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大學』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고 비유하여 『小學』이 인간 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 이는 四書五經의 학문을 수학하기 전에 인간 교육에 근본을 두었던 것으로서, 선조들의 교육 사상을 현대에 재조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연구자는 『小學』을 현대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小學』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배려 윤리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小學』은 남성 중심적으로서 남성의 권위를 옹호하고 여성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배려 윤리는 여성의 보살핌, 신뢰, 관용, 존중, 책임감 등의 덕목을 인간의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어 보편적 윤리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성 중심의 『小學』과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나, 다음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小學』과 배려 윤리는 인위적인 마음이 아닌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적 심성을 중시한다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성의 발현이 차등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小學』과 배려 윤리는 유사하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깊은데, 교육 내용의 본질로서 관계를 중시하며, 그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호간 책무인 쌍무성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 방법으로서 실천과 자기 교육, 본보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련성에 기초하여 『小學』을 활용하여 배려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한 모색하였다. 『小學』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小學』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활성화·체계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려 의식 함양을 위해 『小學』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 교육 방안을 내용과 방법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小學』의 교육 내용을 적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또한 『小學』의 교육 내용을 직접 꺼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小學』 교육 내용의 본질을 활용하여 배려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는 『小學』의 쌍무성과 공경과 배려의 정신을 활용한 배려 의식 함양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小學』의 교육 내용을 적용한 마지막 방법으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小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다음은 『小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한 교육으로 멘토를 정하고 실천 체크리스트 만드는 활동과 이를 생활 속에서 자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어플의 개발 사례를 예상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스스로 성찰하게 해주는 『小學』의 자기 교육을 적용한 반성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배려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 또는 배려받는 자로서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어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려 의식을 함양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 2. 시사점

『小學』과 같은 고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수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현대에서는 고전의 근본정신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적용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오늘날의 학생들이 『小學』의 예화들을 듣고 옛날 사람들도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의 보편성에 공감을 갖게 하려면 『小學』에서 현대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취사선택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小學』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小學』의 예화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씨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김종선, 2008, p. 65). 그러한 가치를 현재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小學』이 어려운 한자 공부가 아닌, 옛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미덕이 녹아들어 있는 책이라는 의식을 전제로 하여 다양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부단히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면, 『小學』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도덕 교육의 훌륭한 소재, 그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小學』을 통해 배려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지만, 차후에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도덕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小學』의 가치에 대해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비단 배려 의식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예를 지키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또한 길러주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경전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孝經』, 『明心寶鑑』

### 2. 저서

고미숙(2005). 대안적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 교육. 울력.

박종천(2011).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 글항아리.

유병열 외(2012). 초등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선우현(2004).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 : 다원주의는 사회적 진보의 징표인가. 이학사.

이홍우(2000). 성리학의 교육이론. 성경재.

최근덕 외(2003). 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최석기(2009).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부. 보고서.

최영갑(2011). 손가락 먼저 들면 왜 안 돼요? 풀빛.

한국사상사연구회(2002).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朱熹·劉清之(2011). 小學集註(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朱熹·劉清之(2011). 小學(윤호창 역). 흥익출판사.

Buber, M.(1995). 나와 너(표재명 역). 문예출판사.

Katz, M. S., Noddings, N., & Strike, K. A.(2007). 정의와 배려(윤현진 외 역). 인간 사랑.

Noddings, N.(2002). 배려교육론(추병완 외 역). 다른우리.

### 3. 학위논문

권윤정(2012). 『小學』의 도덕교육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정애(2008). Noddings의 배려윤리와 그 교육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신동은(2003). 『小學』의 실천교육원리와 현대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춘자(2005). 주희 윤리교육사상의 현대 도덕교육에의 적용 : 『小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 오석중(1999). 『小學』의 덕교육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은(2011). 배려 윤리의 교육적 의의와 도덕 교과에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강수(1999).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小學』 활용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선(2008). 도덕과 교육에서의 『小學』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춘옥(2009).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배려의 개념과 행동양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선엽(2001). 『小學』의 체제와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진희(2008). 주자 『小學』의 내용 분석을 통한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진(2004). 『小學』에 나타난 도덕교육 접근방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영(2011). 초등 교과서의 배려 윤리에 관한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자(2000). 『小學』에 나타난 효경 사상의 현대 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영(2012). 나딩스의 배려윤리에 기초한 도덕과 수업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주(2004). 『小學』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연(2010).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배려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준건(2004).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배려 윤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4. 학술논문

- 목영해(2002).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점과 그 함의.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제14권 1호.
- 박병기(1996). 초등 도덕교육론의 텍스트로서의 『小學』 읽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창간호.
- 신동은(2004). 『小學』의 교육적 원리 연구.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 제31집.
- 신동은(2009). 『小學』의 도덕교육적 의미 : 가치 전수와 도덕적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 제45집.
- 오석종(2001). 『小學』에 나타난 청소년 덕성 교육론. 한국청소년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창간호.
- 오세근(2001). 현대 교육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 시각 정립을 위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제4집.
- 이대일(2008). '초등도덕과'에서 『小學』 도덕교육원리의 의미. 대경교육학회, 교육학논총, 제29권 제1호.
- 장승희(2007). 『論語』 「鄉黨」을 통해 본 禮의 本質과 作用原理.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제30집.
- 장운수(2003). 『小學』의 교학이념. 동양예학회, 동양예학, 제11집.
- 최현호(2006).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小學』 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23호.
- 한관일(2010). 조선시대 『小學』의 효 사상.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청소년과 효문화, 제15집.

<abstract>

The Application of 『Sohak』 for  
Cultivation of Considerate Consciousness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Choi, Jae-Young(JEJU Jocheo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has basic prerequisite that 『Sohak』 is an outstanding educational book which can respond to problem raised from modern educational situation and suggest direction to correct the situation. From superficial view, man oriented 『Sohak』 and woman oriented care ethics seem to be contradictory each other. But as a result of study, it can be known that there exists considerable relationship between 『Sohak』 and care ethics - 『Sohak』 specifically teaches when and how one should be considerate in the midst of variable human relationship, care ethics puts importance on emotional characteristics like human warm care, love etc. and emphasizes community consciousness.

Based on such relation, this study explored various methods to cultivate considerate consciousness by applying 『Sohak』 in modern way. By suggesting methods to us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of 『Sohak』, this study made teachers easily use in educational field.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suggested above, students do not simply learn skill to be considerate for the others, but they would sincerely understand position of the others as giver or receiver of consideration. And they would naturally cultivate considerate consciousness through voluntary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daily lives beyond space of school. So,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clue for settlement can be provided to reality of critical educational crisis.

<Key words> Sohak, care ethics, cultivation of considerate consciousness, educational content of Sohak, educational method of Sohak